

# 함평군,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사업 최우수기관

### 식약처, 226개 기초단체 4개분야 13개 지표 평가 위해식품 회수업체 점검 등 '위생관리시책' 호평

함평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시상한다.

올해 식약처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시책 ▲우수사례 등 총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

해 상위 11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위해식품 회수업체 점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활동 종사자 교육 등 그동안 중점 추진해왔던 위생관리시책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연초부터 확산한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역 외식업소에 손소독제, 살균제, 위생마스크, 위생복 등의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소규모(배달) 음식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가이드 교육을 실시한 것도 호평을



반으면서 이번에 최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상금 200만 원을 수상했다. 한편 함평군은 수상한 상금 200만 원 전액을 지역 인재양성기금에 기탁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순 기자



목포시, 유흥주점·노래방 클럽 QR코드 출입 의무화

목포시는 10일부터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입장하려면 QR코드로 출입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간 서울, 인천, 대전 시범 시행에 이어 1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8대 고위험 시설 대상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운영을 의무화한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당시 허위로 작성된 유흥시설 출입자 명부로 인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자 대안으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 시설은 ▲한티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폴리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 8개 분야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으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하게 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수도권과 교류가 많은 교통 거점으로 언제든지 지역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본격 시행된다.

목포=박정수 기자

## 영광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용자금 이자율 인하

3% → 1%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

영광군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용자금 지원 사업을 기존 용자 이자율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율 인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자로 시행했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며 용자조건은 연이율 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액은 주민 1,000만 원, 기업의 경우 3,000만 원 이내이다.

용자를 원하는 주민 및 기업은 11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서 여신심사 이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올해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매월 1억 원이 편성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홈페이지 열린군정(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원전관리팀에 전화(061-350-5825) 및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다.

영광=서희권 기자



## "걱정은 내게 맡겨"...걱정인형 만들기

무안군오승우미술관, 6월 온라인 미술체험 프로그램

무안군오승우미술관은 6월 온라인 미술체험 프로그램으로 '걱정인형 만들기'를 선정하고 1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무안군오승우미술관 온라인 미술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들을 위해 택배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체험재료를 제공하여 가정에서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체험을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지난 4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6월에 운영하는 '걱정인형 내게 맡겨!! 걱정인형 만들기' 속의 '걱정인형'은 오래전부터 과테말라 지역에서 전해오는 인형으로 아이가 걱정이나 공포로 잠들지 못할 때 부모들이 선물해 준 걱정인형에 걱정을 이야기하면 인형이 걱정을 가지고 간다고 믿고 안정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병원이나 아동상담센터

등에서 아이들의 수면 장애나 심리치료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아직은 대면 교육프로그램이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6월에도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부모님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인형을 만들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월 프로그램 신청은 11일 2시부터 무안군오승우미술관 홈페이지(www.muang.go.kr/museum)를 통해 접수(선 등록 400명)를 받고 온라인 영상은 6월 12일 목요일 유튜브(검색창 무안군오승우미술관)에 게시할 예정이며, 체험재료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6월 13일 금요일부터 미술관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무안=이기성 기자

## 신안군, LED등 설치로 섬 밤길 더 밝아졌다

농어촌가로등 및 선착장 타워폴 743개소 설치 완료

신안군은 야간 통행 시 안전사고 예방과 물때 작업에 필요한 야간 조명시설 지원을 위하여 LED 보안등, 선착장 타워폴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 보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설치하는 등 섬 불 밝히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은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많아 야간이나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 중에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또 물양장 수산작업 시 필요한 조명시설(타워폴) 부족과 야간 영농작업 시 필

요한 가로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은 농어촌가로등 265개 3억1천만원, 소규모 선착장 타워폴 8개소 1억6천만원, 노후가로등과 보안등 470개소 교체에 6억원 등 총 10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LED 조명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제 우리 군민들도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하고 수산작업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조명시설을 꾸준히



늘리고 노후 보안등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섬에서도 도시와 같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